

본 논문은 우가릿 문헌의 연구가 구약성서 연구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며, 주요 우가릿 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의 방법론적 성향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가릿 문화권과 히브리어 문화권과의 언어적 관계, 문학적 관계와 종교적 관계를 다룬다.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관계: 최근 연구 동향

조 상열 | 평택대 감사

1. 서론

지난 2세기 동안 근동 지역의 고대 문명지에서 발굴된 토판 문헌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구약성서의 본문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세기초부터 이루어진 우가릿의 발굴과 이에 따른 우가릿 토판 문헌 연구는 구약성서 본문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우가릿 토판 문헌이 발굴되자 고대 셈족어(Semitics)에 정통한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초기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가릿 문헌 연구는 구약성서의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서의 외적 증거(extra-biblical evidence)를 제공하며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1929년 시리아의 라스 샴라(Ras Shamra)에서 프랑스 고고학자인 쉐페(C. F.-A. Schaeffer)의 지휘 아래 고대 도시 국가인 우가릿의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한 이래로, 미네트 엘-베이다(Minet el-Beida)와 라스 이븐 하니(Ras Ibn Hani) 등지에서도, 많은 토판을 발굴할 수 있었다.¹⁾ 고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언어와 문학과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우가릿 토판의 기록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우가릿 토판 문헌 연구는 특히 구약성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우가릿 문헌 연구의 중요성을 주창한 올브라이트(W. F. Albright)의 예견이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²⁾ 사실 그 동안 올브라이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우가릿어와 히브리어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비교 방법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³⁾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두 문헌간의 언어와 문학과 종교적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위한 대안과 새로운 연구 성과의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언어적 관계

우가릿어가 히브리어의 직접적인 조어(祖語)가 되는 언어는 아니다. 또 논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언어적 차별성으로 인해 우가릿어를 가나안 어족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우가릿어가 히브리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세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불명확한 히브리어의 어의를 우가릿어가 규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가릿어 연구가 히브리어 연구에 미친 영향은 우선 성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가릿어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
- 1) 이 때 얻은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는 저널 *Syria*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 2) 올브라이트는 고든(C. H. Gordon)의 책인 *The Pennsylvania Tradition of Semitic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Centennial Publication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54쪽에서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도는 우가릿어를 주의 깊게 연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같은 입장은 로버츠의 수공과 지지를 얻는다. J. J. M. Roberts, “The Ancient Near Eastern Environment,” D. A. Knight/G. M. Tucker(eds.),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Decatur, GA: Scholars Press, 1985), 77쪽을 보라.
- 3) 이와 관련한 개괄적 연구로는, W. F. Albright, “The Old Testament and Canaanite Language and Literature,” *CBQ* 7 (1945), 5-31쪽; H. L. Ginsberg, “Ugaritic Studies and the Bible,” *Biblical Archaeologist* 8 (1945), 41-58쪽; A. S. Kapelrud, *The Ras Shamra Discoveries and the Old Testament* (G. W. Anderson 옮김),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3); P. C. Craigie, “Ugarit and the Bible: Progress and Regress in 50 Years of Literary Study,” G. D. Young(ed.), *Ugarit in Retrospect: Fifty Years of Ugarit and Ugaritic*, (Winona Lake, ID: Eisenbrauns, 1981), 99-111쪽; idem., *Ugari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A: Eerdmans, 1983)를 참고하라.

자주 등장한다.⁴⁾ 1970년대 들어서, 우가리트어는 성서 히브리어 어의 연구 사전에서 아람어와 아랍어와 아카드어 등과 함께 결정적인 관련 고대 근동 동족어(cognate)로 인용되면서 히브리어의 어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로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한다.⁵⁾ 이렇게 우가리트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성서 히브리어의 어의를 명확히 하는 사전들은 구약성서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는 우가리트어-히브리어 비교 연구의 결과가 60-70년대에 출판된 구약성서 주석에 반영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올브라이트의 제자였던 다후드(M. Dahood)가 쓴 앵커 바이블(Anchor Bible) 시리즈의 시편 주석이 이 분야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며 주목을 받았다.⁶⁾ 다후드는 MT에서 모음이 첨가된 최종 형태의 문자보다는 모음을 고려하지 않은 원래의 히브리어 자음을 더 신뢰하면서 그 히브리어 자음을 우가리트어와 다른 고대 근동 언어와 비교 연구하여 시편의 본문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주석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는 또 서북 셈족어(Northwest Semitics) 간에는 각각의 언어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언어적 역사적 상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가리트어와 포에닉어(Phoenician)와 히브리어를 언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서로 연속성을 가졌던 동일한 어족으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다후드는 올브라이트의 또 다른 제자인 크로스(F. M. Cross)와 프리드먼(D. N. Freedman)과는 달랐다.

다후드는 히브리어 본문의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그 단어에 대한 이

4) 대표적으로, L. Köhler/W.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J. Brill, 1958)와 이 사전의 개정판인 L. Köhler/W. Baumgartner/J. J. Stamm,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 E.J. Brill, 1967)와 이 사전의 영역본인 L. Köhler/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W. Baumgartner/J. J. Stamm 옮기고 엮음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Leiden: E.J. Brill, 1994-2000)가 있다.

5)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ed. by G. J. Botterweck and H. Ringgren, Stuttgart: W. Kohlhammer, 1973-7)와 이 책의 영역본인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by J. T. Willis, G. W. Bromiley, and D. E. Green, Grand Rapids: Eerdmans, 1974-)를 보라.

6) M. Dahood, *Psalms I: 1-50* (Anchor Bible 16), (New York: Doubleday, 1966); *Psalms II: 51-100* (Anchor Bible 17), (New York: Doubleday, 1968); *Psalms III: 101-150* (Anchor Bible 17A), (New York: Doubleday, 1970)을 보라. 그는 우가리트어-히브리어 비교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결과물을 내 놓으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M. Dahood, *Ugaritic-Hebrew Philology: Marginal Notes on Recent Publications* (Biblica et Orientalia 17),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5)을 보라.

전의 다른 학자들의 문법적 견해를 제시하며, 이를 다시 다른 여러 예들과 연결시킴으로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지지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그는 히브리어 자음 עֲלִי가 신적 칭호(the divine title)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⁷⁾를 인용하면서, 우가릿어의 예를 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며 시편의 본문을 재 번역할 때 이를 적용하고 있다.⁸⁾ 또 시 29편 9b절의 אִמַּר כְּבוֹד (우버헤칼로 쿨로 오메르 카보드)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는데,⁹⁾ 그는 여기서 ‘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אָמַר(아마르)를 그것의 동족어이며 ‘보다’를 뜻하는 우가릿어 동사어근 *'mr*(아마라, KTU 1.3 i 22)¹⁰⁾와 아카드어 *amāru*(아마루/보다)와 같은 용어로 해석한다.¹¹⁾ 따라서 다후드는 본문의 히브리어 자음 אִמַּר를 명사형으로, 또 히브리어 자음 כְּבוֹד(카보드)를 신의 칭호로 해석해, ‘영광스러운 자의 이상’(a vision of the Glorious One)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히브리어 동사 어근 אָמַר를 수동형으로 읽어서 영광이 ‘보여지다’, 즉 ‘나타나다’(the Glorious One/Glory appears)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들은 히브리어 자음 כָּבֹד는 다후드의 해석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의 칭호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런 신 현(theophany) 자체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길을 열어 준다. 다후드는 또 본문의 히브리어 자음 כָּבֹד를 장소 뒤에 붙는 후치사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9b절 본문의 전체적인 재해석은 ‘그리고 그의 모든 성전에서[(직역) 그의 성전에서-그것의 모든 것들(에서)], 영광이 나타나더라’가 될 수도 있을

7) H. S. Nyberg, *Studien zum Hoseabuche: Zugleich ein Beitrag zur Klärung des Problems der alttestamentlichen Textkritik* (Uppsala Universitets Arsskrift 1935/6),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35), 58-9, 90, 120쪽; M. H. Pope, *El in the Ugaritic Texts* (VTS 2), (Leiden: E.J. Brill, 1955), 58쪽 각주 20을 보라.

8) M. Dahood, *Psalms I*, 117쪽; *Psalms II*, 149쪽을 보라. 다후드는 또 시편 32편 5b절의 עֲלִי를 ‘Most High’로 번역하고 있으며(*Psalms I*, 195쪽) 시편 18편 42절의 עֲלֵי יְהוָה를 ‘the Most High Yahweh’로 해석하고 있다.

9) 개역개정판: NJPS; NRSV.

10) 인명으로 사용된 우가릿 고유명사 *a-mur-baʿl*(아-무르-바알)은 그 뜻이 “나는 바알을 보았다”이다. F. Grondahl, *Die Personennamen der Texte aus Ugarit* (Studia Pohl 1),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7), 320쪽을 보라. 그리고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54쪽 주 39를 참조하라.

11) M. Dahood, *Psalms I*, 175, 179-80쪽.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성전의 예배자들이 주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 안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주의 신 현을 강조하는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의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보다는 9b절의 כּל (כול/그의 모든 것들)를 1절의 בני אלים (버네 에림/하나님의 아들들)과 2절의 שׂפּ (코데쉬/거룩한 자들)와 의미상 평행을 이루는 반복적 표현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하위 신들, 즉 천사들로 해석한다.¹²⁾ 따라서 이 본문은 지상의 성전에서 인간 예배자가 신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궁정에서’(LXX ἐν αὐλῆ ἀγία αὐτοῦ)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다후드는 서북 셈족어, 특히 우가리트어의 용례와 연결해서 히브리어를 재해석함으로써 본문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후드가 우가리트어에 근거하여 히브리어 본문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구약 본문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진 않지만, 단어의 형태학적인 설명도 없이 동사를 명사로 해석하는 등 무리하게 그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¹³⁾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9b절에서 אִמְרָהּ (오메르 카보드/영광을 말하다)로 읽도록 모음화 되어 있는 MT의 본문을, 모음을 무시하고 אִמְרָהּ의 자음을 명사로 읽어서 ‘vision’으로 번역한 후 ‘a vision of the Glorious One’으로 해석한 점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성 해석에 너무 기대어 있는 것이 학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 보수적인 성서학자들은 구약 본문을 번역할 때, 다른 고대 역본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원문이 오사(誤寫)나 수정을 통해 손상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기존의 MT를 변형하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후드의 경우에는 구약의 본문을 번역할 때, 참고되

12) 시편 29편 1-2절과 9절에 나타난 하위 신들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는 필자의 글을 참고하라: S. Y. Cho, *Lesser Deities in the Ugaritic Texts and the Hebrew Bible: A Comparative Study of their Nature and Roles*,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07), 69-74쪽.

13) 시편에 대한 다후드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A. H. W. Curtis, “The Psalms Since Dahood,” G. J. Brooke/A. H. W. Curtis/J. F. Healey(eds.), *Ugarit and the Bibl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Ugarit and the Bible, Manchester, September 1992* (Ugaritisch-Biblische Literatur 11), (Münster: Ugarit-Verlag, 1994)를 참조하라.

는 LXX나 DSS의 기여도에 대하여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¹⁴⁾

다후드 뿐만 아니라 고든(C. H. Gordon)과 까꼬(A. Caquot)와 드라이버(G. R. Driver)와 올브라이트와 왓슨(G. W. Watson)과 진스버그(H. L. Ginsberg)와 크로스 같은 많은 학자들 역시 우가리트어를 통해서 서북 셈족어의 문법과 단어 연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언어학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노력하였다.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는 구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유용하였고 동일한 공적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문학적 관계

우가리트 문헌과 구약성서의 문학 비교는 먼저 양 문헌간의 시적 구조와 평행법(the parallelism)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평행법 연구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공헌과 업적이 크다. 그 중 파디(D. Pardee)는 우가리트 본문인 KTU 1.3 본문과 잠언서를 비교하면서 양 본문에 나타나는 평행법을 분류하였으며, 콜린스(T. Collins)와 겔러(S. A. Geller)와 카이저(B. Kaiser)와 오코너(M. O'Connor)와 같은 학자들의 분류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면서 그의 분석을 정리해 나갔다.¹⁵⁾ 우가리트-히브리어 평행법의 한 예를 든다면 KTU 1.17 ii 15에 기록된 *kyld bn ly*(카유리다 부누 리야/왜냐하면 한 아들이 나에게 낳도다)를 들 수 있다. 이 구절은 왕족 혹은 왕으로 보이는 다넬(Danel)에게 앞으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리고 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탄생 특히 왕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자주 사용되던 관용구였다. 이러한 표현은 사 9장 5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도다”(כִּי יֵלֵד לָנוּ אֶת־בְּנוֹתָנוּ)라는 유명한 구절로 한 왕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고대 가나안과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 동일한 법칙을 사용하였던 시적 전승이 존재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러한 우가리트 문헌과 구약성서의 언어적 문학적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결과는 광대해서 여기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나마

14) M. Dahood, *Psalms III*, xxxiv-xxxvii를 보라.

15) D. Pardee, *Ugaritic and Hebrew Poetic Parallelism: A Trial Cut (nt I and Proverbs 2)* (VTS 39), (Leiden: E.J. Brill, 1988)를 보라.

우선 최근의 비교 문학적 경향을 살펴보면, 파커(S. B. Parker)와 아비슈르(Y. Avishur)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겠다. 파커는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와 우가릿과 이스라엘과 히타이트의 문헌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문학적 유형과 동기(motifs)를 연구하고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내었다.¹⁶⁾ 이러한 유형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파커는 우가릿 문헌의 아콧트(Aqhat) 이야기의 시적 구조와 '가족'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역시 같은 우가릿 문헌의 케레트(Keret) 이야기에서는 왕권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그는 특히 케레트의 왕권을 수호하고 있는 우가릿 만신전의 최고신인 엘(EI)의 자비와 지혜와 권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아비슈르는 우가릿과 구약성서의 시가의 형태와 구조를 비교 연구하였다.¹⁷⁾ 그는 그의 첫 번째 책인 *Studies in Hebrew and Ugaritic Psalms*에서 우가릿 문헌과 시편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시 29편과 합 3장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주로 이루어지는 비교 방법론은 구약 본문의 문학적 양식과 구조와 주제와 동기를 분석하면서, 문학적 단위인 절(verses)과 행 cola)과 구(phrases)와 단어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었다. 가나안 시편의 요소를 구약 시편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지만, 그의 연구는 학자들이 반세기 이상 동안 수행해 온 비교 연구의 핵심적 문제를 분석하며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는 또 그의 두 번째 책인 *Studies in Biblical Narrative*에서 우가릿 시를 구약성서와 다른 고대 근동 문헌들과 비교하면서 보다 폭 넓은 연구를 선보였다.

이러한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비교 문학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에 관한 연구로 이어진다. 알터(R. Alter)는 구약성서의 문학적 구조가 이스라엘의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약성서가 고대 근동의 신화와는 구분되며, 다신론적인 고대 근동의 문학 양식이 일신론을 따르고 있는 구약성서 저자들이 기록한 새로운 매개체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다.¹⁸⁾ 즉 신학이 문학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

16) S. B. Parker, *The Pre-biblical Narrative Tradition* (SBL Resources for Biblical Study 24), (Atlanta: Scholars Press, 1989).

17) Y. Avishur, *Studies in Hebrew and Ugaritic Psalms*, (Jerusalem: Magnes, 1994); idem., *Studies in Biblical Narratives: Style, Structure, and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Background*, (Tel Aviv: Archaeological Center, Tel-Aviv University, 1999).

18) R.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29쪽.

며, 문학 양식은 신에 관한 대화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커의 생각은 이와 좀 다르다. 파커는 알티가 문학적 분류(양식)와 신학적 분류(일신론, 다신론)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⁹⁾ 그는 고대 근동의 설화 문학은 다신론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며, 이는 신화적이고 서사적인 운문체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많은 경우에 특히 산문체에서는 신이 한 명만 나타나거나 혹은 아무 신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구약성서 저자들이 새로운 매개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승된 것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구약성서가 일신론적인 기록이지만, 모든 고대 히브리 저자들이 다 일신론자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는 구약성서에는 일신론과 저자들의 일신론적인 저술 목적이 나타나지만, 정경으로서의 마지막 형태 이전의 자료에서는 다양한 신적 존재들의 실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파커는 “고대 근동의 설화는 ‘다신론적 양식’이라는 용어로 한 데 묶을 수 없으며, 고대 히브리 저자들은 ‘일신론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²¹⁾ 알티의 주장에 대한 파커의 반격과 같은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문학과 종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분야이다.

4. 종교적 관계

우가릿 문헌 연구에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끄는 분야는 아무래도 신학(theology), 즉 신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우가릿 종교에 관해서는 1950년대에 아이스펠트(O. Eissfeldt)²²⁾와 포프(M. H. Pope)²³⁾가 중요한 업적을 이룬다. 이들은 우가릿 만신전의 여러 신들 중 최고신인 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포프는 우가릿어의 문

19) S. B. Parker, *Stories in Scripture and Inscriptions: Comparative Studies on Narratives in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and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37-8쪽을 보라.

20) 이와 관련한 논의로 하위 신들 즉, 천사를 주제로 한 필자의 저서를 참고하라: S. Y. Cho, *Lesser Deities*.

21) 즉, “ancient Near Eastern narrative cannot be lumped together under the term ‘polytheistic genre’, and ancient Hebrew writers did not fashion ‘a new medium’ for ‘monotheistic purposes’” Parker, 앞글, 138쪽.

22) O. Eissfeldt, *El im Ugaritischen Pantheon*, (Berlin: Akademie Verlag, 1951).

23) M. H. Pope, *El in the Ugaritic Texts*, (Leiden: E. J. Brill, 1955).

법적 언어적 어휘적 설명을 통해서 엘의 기능을 해석하고 분류하였다. 그는 우가릿 문헌에서 엘이 *ab adm*(아부 아다무/사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등, 그를 창조자 신으로 여길 만한 신적 칭호들은 있지만, 그의 창조 행위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가릿 문헌에서 우주적 창조 이야기라고 할만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우가릿 문헌에서 엘의 창조성은 출산(*generation*)과 부성(*paternity*)에 관련해서 암시될 뿐이라고 말한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드 모어(J. C. de Moor)의 반론에 부딪힌다.²⁵⁾ 포프의 주장은 일단 엘의 출산 혹은 생성(*generation*)과 우주의 창조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드 모어는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구절들을 비교하여 우가릿의 창조자 엘과 이스라엘의 창조자 야훼의 기능적 유사성을 논증한다.

이 외에도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들과 그들의 신성에 관한 비교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물을 들면 데이(J. Day)가 그의 박사 논문으로 하나님과 용과 바다의 우주적 충돌의 동기에 관하여 조사하였고,²⁶⁾ 루이스(T. J. Lewis)는 사자(死者)에 대한 제의를 연구하였으며,²⁷⁾ 코펠(M. C. A. Korpel)은 신인 동형론을 다루었고,²⁸⁾ 페이지(H. R. Page)는 우주적 반역의 동기를 살펴보았다.²⁹⁾ 와이엇(N. Wyatt)은 신화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글을 썼고,³⁰⁾ 일신론에 관한 주제로 드 모어³¹⁾와 스미스(M. S. Smith)³²⁾

24) *Ibid.*, 49-54쪽.

25) J. C. De Moor, "El, The Creator," G. Rendsburg 들(eds.), *The Bible World*,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80), 171-187쪽.

26)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University of Cambridge Oriental Publication 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27) T. J. Lewis, *Cults of the Dead in Ancient Israel and Ugarit* (Harvard Semitic Monographs 41), (Atlanta: Scholars Press, 1989).

28) M. C. A. Korpel, *A Rift in the Clouds* (Ugaritisch-Biblische Literatur 9), (Münster: Ugarit-Verlag, 1990).

29) H. R. Page, *The Myth of Cosmic Rebellion: A Study of Its Reflexes in Ugaritic and Biblical Literature* (Vetus Testamentum Supplements 65), (Leiden: Brill, 1996).

30) N. Wyatt, *Myths of Power: A Study of Royal Myth and Ideology in Ugaritic and Biblical Tradition* (Ugaritisch-Biblische Literatur 13), (Münster: Ugarit-Verlag, 1996).

31) J. C. de Moor, *The Rise of Yahwism: The Roots of Israelite Monotheism*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91), (Leuven: Peeters, 1990¹, 1997²).

가 연구물을 각각 발표했다. 핸디(L. K. Handy)는 만신전의 관료제적인 구조에 관하여 논문을 썼다.³³⁾ 상위 신들 중에서는 아세라 여신이 최근에 학문적 관심의 조명을 받았다.³⁴⁾ 필자인 조 상열은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하위 신들, 즉 천사들의 본성과 역할을 비교 연구하였다.³⁵⁾ 또 최근에 출판된 *DDD*는 구약성서와 고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헌에 나타난 신들과 마귀들을 연구한 사전으로서, 이 분야에 있어서 방대하면서도 전문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³⁶⁾ 이러한 연구물들은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다신론적 신학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가능케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일신론에 관한 논쟁은 현재 드 모어와 스미스가 주도하고 있다. 드 모어는 아케나텐의 일신론이 후기 청동기 시대에 있던 가나안의 다신론에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³⁷⁾ 다신론은 더 이상 실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종교적 염세주의로 흘렀다는 것이다. 이 종교적 염세주의는 우가릿 신화에 반영되어, 엘의 영향력은 축소되어 나타난다. 철기 시대로 넘어와서 이러한 종교적 경향성은 이스라엘의 일신 숭배(monolatry)로 이어졌다는 것이 드 모어의 설명이다. 드 모어가 일신 숭배를 일신론과 동일한 것으로 보자, 스미스는 그럼 왜 실제적인 일신론적 표현들이 기원전 6-7세기경의

-
- 32) M. S. Smith,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스미스의 또 다른 저서인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², 1990¹)을 참고하라.
- 33) L. K. Handy, *Among the Host of Heaven: The Syro-Palestinian Pantheon as Bureaucracy*,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 34) 대표적으로, S. A. Wiggins, *A Reassessment of 'Asherah': A Study according to the Textual Sources of the First Two Millennia B.C.E.*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235), (Kevelaer: Verlag Butzon & Berck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이 책은 최근에 부록이 더 보강되어 재출판되었다: *A Reassessment of Asherah: With Further Considerations of the goddess*,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07); T. Binger, *Asherah: Goddesses in Ugarit, Israel and the Old Testamen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32), (Copenhagen International Seminar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가 있다.
- 35) S. Y. Cho, *Lesser Deities*.
- 36) K. van der Toorn/B. Becking/P. W. van der Horst(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Leiden: Brill, 1995¹; 1999²).
- 37) J. C. de Moor, *The Rise of Yahwism*, 71-102쪽; idem., "The Crisis of Polytheism in Late Bronze Age Ugarit," *Oudtestamentische Studiën* 24 (1986), 1-20쪽.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의의를 제기한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일신론적 주장이 기원전 6-7세기경의 유대의 일신 숭배의 특별한 표현이었다고 해석한다.³⁸⁾ 또한 드 모어는 KTU 1.1 iv에 나오는 우가릿어 자음 yw(야우/주)와 히브리어 자음 יוהו(야훼/주)를 동일시하며 이것을 철기 시대 이전의 것으로 가정한다. 그는 또 후기 청동기의 다신론 신앙이 빛을 잃어감으로 일신론이 대두되었다고 말한다.³⁹⁾ 드 모어는 후기 청동기 역사와 문화를 분석하고,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히브리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가릿어를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 간에 이견은 있지만, 드 모어의 연구가 우가릿어-히브리어 비교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리되는 점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들에 관한 이해가 서 셈족, 즉 가나안의 문화적 환경 안에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우가릿 종교와 상당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다.

5. 결론

1929년 이전에 앗시리아학이 히브리어 사전과 구약성서 주석 등 구약성서 연구 주요 분야에 큰 영향을 주며 공헌하였던 것처럼, 우가릿학(Ugaritology)은 구약성서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연구 주제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가릿-구약성서 비교 연구 방법은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가릿 본문에 대한 근본적인 언어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고고학적 증거가 곁해지는 통합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에서 얻어진 새로운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들이 구약성서 연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우가릿학은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의 초기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가릿 문헌이 구약성서 본문 연구의 근본적인 연구 자료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성서학자들의 우가릿 문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8) M. S. Smith,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특히 135-194쪽을 보라.

39) 와이엇은 드 모어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N. Wyatt, *Myths of Power*, 326-7쪽을 보라.

6. 참고문헌

- 쿠간, M. D., 「우가릿 신화의 세계」 (유 선명 옮김), (서울: 은성, 1992).
- 유 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31권 (2004), 77-98쪽.
- _____, “우가릿 문학의 mp'm과 구약성서,” 「구약논단」 제 8집 (2000), 221-249쪽.
- 이 환진, “고대 시리아의 우가릿인들이 말하는 인간 - 죽음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2004), 123-146쪽.
- 조 상열, “창세기 6장 2, 4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친족성,” 「구약논단」 제 13권 2호 (2007), 145-156쪽.
- Albright, W. F., “The Old Testament and Canaanite Language and Literature,” *CBQ* 7 (1945), 5-31쪽.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vishur, Y., *Studies in Hebrew and Ugaritic Psalms*, (Jerusalem: Magnes, 1994).
- _____, *Studies in Biblical Narratives: Style, Structure, and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Background*, (Tel Aviv: Archaeological Center, Tel-Aviv Uni., 1999).
- Binger, T., *Asherah: Goddesses in Ugarit, Israel and the Old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Cho, S. Y., *Lesser Deities in the Ugaritic Texts and the Hebrew Bible: A Comparative Study of Their Nature and Roles*,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07).
- Craigie, P. C., “Ugarit and the Bible: Progress and Regress in 50 Years of Literary Study,” G. D. Young(ed.), *Ugarit in Retrospect: Fifty Years of Ugarit and Ugaritic*, (Winona Lake, ID: Eisenbrauns, 1981), 99-111쪽.
- _____, *Ugari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A: Eerdmans, 1983).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Curtis, A. H. W., “The Psalms Since Dahood,” G. J. Brooke/A. H. W. Curtis/J. F. Healey(eds.), *Ugarit and the Bibl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Ugarit and the Bible*, Manchester, September 1992, (Münster: Ugarit-Verlag, 1994).
- Dahood, M., *Psalms I: 1-50*, (New York: Doubleday, 1966).
- _____, *Psalms II: 51-100*, (New York: Doubleday, 1968).
- _____, *Psalms III: 101-150*, (New York: Doubleday, 1970).
- _____, *Ugaritic-Hebrew Philology: Marginal Notes on Recent Publication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5).
- Day, J.,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Eissfeldt, O., *El im Ugaritischen Pantheon*, (Berlin: Akademie Verlag, 1951).
- Ginsberg, H. L., “Ugaritic Studies and the Bible,” *BA* 8 (1945), 41-58쪽.

- Gordon, C. H., *The Pennsylvania Tradition of Semitic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Grondahl, F., *Die Personennamen der Texte aus Ugarit*,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7).
- Handy, L. K., *Among the Host of Heaven: The Syro-Palestinian Pantheon as Bureaucracy*,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 Kapelrud, A. S., *The Ras Shamra Discoveries and the Old Testament*, (G. W. Anderson 옮김),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3).
- Korpel, M. C. A., *A Rift in the Clouds*, (Münster: Ugarit-Verlag, 1990).
- Lewis, T. J., *Cults of the Dead in Ancient Israel and Ugarit*, (Atlanta: Scholars Press, 1989).
- de Moor, J. C., 'El, The Creator', in *The Bible World*, G. Rendsburg, et al., eds.,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80), 171-187쪽.
- _____, "The Crisis of Polytheism in Late Bronze Age Ugarit," *Oudtestamentische Studiën* 24 (1986), 1-20쪽.
- _____, *The Rise of Yahwism: The Roots of Israelite Monotheism*, (Leuven: Peeters, 1990, 1997).
- Nyberg, H. S., *Studien zum Hoseabuche: Zugleich ein Beitrag zur Klärung des Problems der alttestamentlichen Textkritik*,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35).
- Page, H. R., *The Myth of Cosmic Rebellion: A Study of Its Reflexes in Ugaritic and Biblical Literature*, (Leiden: Brill, 1996).
- Pardee, D., *Ugaritic and Hebrew Poetic Parallelism: A Trial Cut* (nt I and Proverbs 2), (Leiden: E.J. Brill, 1988).
- Parker, S. B., *The Pre-biblical Narrative Tradition*, (Atlanta: Scholars Press, 1989).
- _____, *Stories in Scripture and Inscriptions: Comparative Studies on Narratives in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and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Pope, M. H., *El in the Ugaritic Texts*, (Leiden: E. J. Brill, 1955).
- Roberts, J. J. M., "The Ancient Near Eastern Environment", D. A. Knight/G. M. Tucker(eds.),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Decatur, GA: Scholars Press, 1985).
- Smith, M. S.,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19901).
- _____,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Wiggins, S. A., *A Reassessment of 'Asherah': A Study according to the Textual Sources of the First Two Millennia B.C.E.*, (Kevelaer: Verlag Butzon & Berck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 Wyatt, N., *Myths of Power: A Study of Royal Myth and Ideology in Ugaritic and Biblical Tradition*, (Münster: Ugarit-Verlag, 1996).

검색어

우가릿어

우가릿 종교

우가릿 문학

히브리어

비교 연구

투고일: 2008년 4월 15일

심사일: 200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8일

Ugaritic Studies and Their Impact on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ang-Youl Cho

Instructor at Pierson School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University of Edinburgh, Ph.D.

This paper introduces a short history of Ugaritic studies and their impact on Old Testament studies. From the first archaeological discoveries in the late 1920s, Ugaritic studies have revised the modern biblical scholars'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is paper, the methodological trends of the major Ugaritic and biblical scholars are analyzed. Thus, it focuses on three major issues, including linguistic, literary, and religious relationships between Ugaritic and Hebrew.

For the linguistic impact of Ugaritic to Hebrew, it emphasizes Ugaritic evidence cited in several important dictionaries of biblical Hebrew and the use of Ugaritic studies in some biblical commentary series, especially on the work of M. Dahood. The Ugaritic-Hebrew literary study is exemplified in works of two representatives: S. B. Parker and Y. Avishu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garitic religion and the ancient Hebrew religious tradition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opics in the recent Old Testament studies. After surveying some important works produced by several contributors in this field, the research focuses on

the theological discussion of two significant scholarly figures: M. S. Smith and J. C. de Moor. From these comparative studies, the research makes a conclusion that ancient Hebrew religious tradition have shared the same idea of deities with the Ugaritic religion.

Ugaritology became an interest in the area of biblical studies as Assyriology had been so before 1929. The paper presents the fact that Ugaritic studies will keep its importance in regard to the comparative study with Hebrew, as it has been so. With this fact, the Ugaritic texts deserve a deeper concern of biblical scholar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fundamental peruse of the Ugaritic cuneiform texts with a disciplined skill and the historical research on the text. Then it can be established through archaeological evidence which may enhance confidence in numerous affinities between the two religious texts of Ugaritic and Hebrew.

Keywords

Ugaritic
Ugaritic Religion
Ugaritic Literature
Hebrew
comparative study